

2019년 3월 15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중소형주 중심으로 매물 출회

러셀 2000 지수 -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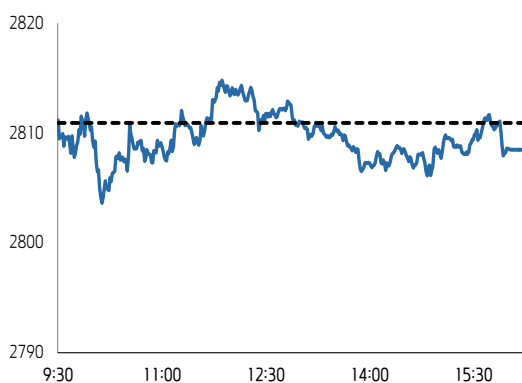
미국, 영국 정치

미 증시는 미국과 영국의 정치적인 표결이 진행 되었으나 영향력은 제한된 가운데 보험권 등락에 그침. 다만, 중소형주에 대한 매물이 출회되며 중소형주의 낙폭이 컸던 점이 특징. 한편, 미-중 정상회담 지연 소식과 일부 경제지표 둔화도 매물 출회 요인(다우 +0.03%, 나스닥 -0.16%, S&P500 -0.09%, 러셀 2000 -0.40%)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상원 표결이 있었음. 지난 2월 26일 미 하원은 트럼프의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의회의 예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이를 저지하는 결의안을 245 대 182 로 채택. 이런 가운데 오늘 공화당(53 석)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결의안을 59 대 41 로 통과.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언급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표결에서 2/3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 발표는 그대로 진행. 그렇지만 이번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일부가 찬성을 했다는 점을 감안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국정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어 미국 정치 불확실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음

영국에서도 브렉시트 관련 표결이 있었음. 영국 의회는 3월 29일 진행되는 브렉시트를 연기시키는 정부안에 대해 412:202 로 통과. 한편, 연기 기간 도중 제 2 국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향후 일정은 20 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이 진행되며 통과되면 6월 30일, 부결되면 더 긴 기간 동안 브렉시트 시기를 연기. 그러나 이번 표결 결과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연기가 되려면 영국 의회가 EU 탈퇴법안의 탈퇴일을 수정하거나, 21~22일 있을 EU 정상회담에서 만장일치로 연기를 해야 됨. 표결 이후 파운드화 등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미 예견된 내용이기 때문. 그러나 향후 브렉시트 이슈에 따른 파운드화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155.68	+0.34	홍콩항셱	28,851.39	+0.15
KOSDAQ	755.42	+0.07	영국	7,185.43	+0.37
DOW	25,709.94	+0.03	독일	11,587.47	+0.13
NASDAQ	7,630.91	-0.16	프랑스	5,349.78	+0.82
S&P 500	2,808.48	-0.09	스페인	9,209.80	+0.19
상하이종합	2,990.69	-1.20	그리스	719.90	+1.37
일본	21,287.02	-0.02	이탈리아	20,877.43	+0.6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애플 및 금융업종 강세

애플(+1.11%)은 6월 3~7일 WWDC를 통해 새로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Cowen의 긍정적인 보고서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GE(+2.79%)는 CEO가 낙관적인 실적 전망을 발표하자 강세를 보였다. 소프트웨어 회사인 MongoDB (+25.59%)는 양호한 실적과 전망을 발표한 이후 급등 했다. 램리서치(+3.59%)는 블랙록이 지난 4분기말 지분을 1.6% 늘려 전체 7.49%를 보유중이라고 발표한 이후 상승 했다.

BOA(+0.58%)는 CEO가 인터뷰를 통해 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발표한 이후 상승 했다. 국채금리 상승도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이에 힘입어 JP모건(+0.91%), 씨티그룹(+0.72%) 등 대부분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다. 반면, 페이스북(-1.85%)은 일부 데이터 거래에 대한 형사 조사 발표로 하락 했다. 시간외로는 제품 책임자 사임으로 시간외로 2% 하락 중이다. 더불어 알파벳(-0.54%)과 영국에서의 독과점 조사 소식도 하락 요인이었다. J&J(-1.00%)는 베이비파우더 관련해 소송당사자에 2,900만 달러를 지불 판결을 받은 이후 하락 했다. 달러제너럴(-7.49%)는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 급락 했다. 월마트(-0.28%), 코스트코(-1.07%), 타겟(-0.82%) 등 소매유통업체들도 동반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30%	대형 가치주 ETF(IVE)	+0.09%
에너지섹터 ETF(OIH)	+0.29%	중형 가치주 ETF(IWS)	-0.13%
소매업체 ETF(XRT)	-1.57%	소형 가치주 ETF(IWN)	-0.39%
금융섹터 ETF(XLF)	+0.38%	대형 성장주 ETF(VUG)	-0.01%
기술섹터 ETF(XLK)	+0.21%	중형 성장주 ETF(IWP)	-0.2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51%	소형 성장주 ETF(IWO)	-0.44%
인터넷업체 ETF(FDN)	+0.04%	배당주 ETF(DVY)	-0.30%
리츠업체 ETF(XLRE)	+0.25%	신흥국 고배당 ETF(DEM)	-0.39%
주택건설업체 ETF(XHB)	-0.55%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43%
바이오섹터 ETF(IBB)	-0.27%	미국 국채 ETF(IEF)	-0.14%
헬스케어 ETF(XLV)	-0.16%	하이일드 ETF(JNK)	-0.06%
곡물 ETF(DBA)	+0.61%	물가연동채 ETF(TIP)	-0.03%
반도체 ETF(SMH)	-0.56%	Long/short ETF(BTAL)	0.0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85.24	+0.06%	+1.28%	+1.61%
소재	346.65	-0.79%	+1.69%	+2.35%
산업재	625.86	-0.35%	+0.29%	-0.84%
경기소비재	868.50	-0.31%	+1.17%	+0.48%
필수소비재	564.34	-0.28%	+1.85%	+0.77%
헬스케어	1,060.23	-0.25%	+2.46%	+0.44%
금융	439.74	+0.41%	+2.33%	+1.29%
IT	1,266.23	+0.20%	+3.59%	+4.75%
커뮤니케이션	158.54	-0.40%	+2.23%	+4.07%
유틸리티	294.03	-0.14%	+1.73%	+4.35%
부동산	220.97	+0.04%	+2.69%	+2.9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장세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4% MSCI 신흥 지수 ETF 도 0.54%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585 계약) 여파로 0.55pt 하락한 277.1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5.4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미국 경제지표 일부 둔화와 미국, 영국의 정치 일정은 이미 예견된 변화였다는 점을 감안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되었다. 그 가운데 일부 종목들의 등락이 지수에 영향을 줬다. 애플의 경우 6 월에 아이패드와 맥프로 등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상승 했으나, 페이스북은 데이터 거래에 대한 조사 및 영국의 독과점 조사 등으로 부진 했다. 이렇듯 종목별 차별화가 미국 등 글로벌 증시의 특징이었다.

한편, 최근 중국 증시는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증권업 협회가 '2015 년의 교훈을 잊지 말라' 라고 증권사 사장단과의 회의에서 언급 한 점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결과로 추정된다. 연초 대비 30% 넘게 가파르게 상승하자 중국 정부 당국이 레버리지 규제를 언급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선 점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글로벌 증시는 종목 장세 또는 속도조절에 들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증시 또한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다음주 18일부터 있을 구글 게임개발자 컨퍼런스와 NVIDIA 의 AI 컨퍼런스, 19~20 일 FOMC, 21~22 일 EU 정상회담 등 주요 일정을 앞두고 있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지표 부진

1 월 미국 신규주택판매는 전월(65 만 2 천건)이나 예상치(61 만 2 천건) 보다 둔화된 60 만 7 천 건을 기록했다. 다만, 이는 지난 12 월 수치가 62 만 1 천건에서 65 만 2 천 건으로 상향 조정 된 여파도 있어 영향력은 제한 되었다. 중간판매 가격은 31 만 7,200 달러로 전년 대비 3.85 낮아졌다.

2 월 미국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6%로 전년 대비로는 -1.3%를 기록했다. 수출 물가는 전월 대비 0.6%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0.3% 상승 했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2 만 9 천 건으로 지난주 발표치(22 만 3 천건)를 소폭 상회했다. 4 주 평균으로는 지난주(22 만 6,250 건) 보다 감소한 22 만 3,750 건으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파운드화 약세

국제유가는 중국 산업생산 부진에도 불구하고 OPEC 의 감산 지속 전망에 힘입어 상승 했다. 이날 OPEC 는 원유시장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수요 증가 전망이 약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감산의 필요성을 언급 했다. OPEC 은 지난 1 월 전월 대비 하루 79 만 7 천 배럴 감산한 데 이어 2 월에는 하루 평균 22 만 1 천 배럴 감산했다고 발표했다.

달러화는 미국 경제지표 부진과 정치 불확실성 부각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 약세 등의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시기 지연에 찬성했으나, 여전히 EU 국가들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둔화 및 미-중 정상회담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며 단기물은 하락 했으나, 장기물은 상승 했다. BOA CEO 가 미국의 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독일 ifo Institute 가 독일의 2019 년 GDP 성장을 하향 조정(1.1%→ 0.6%)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1.8% 증가로 회복 될 수 있다는 발표하는 등 경기 바닥론이 부각된 점도 장기물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화의 강세 여파로 1% 넘게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도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73% 상승 했으나, 철근은 0.55%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8.61	+0.60	+3.44	Dollar Index	96.780	+0.24	-0.91
브렌트유	67.23	-0.47	+1.40	EUR/USD	1.1302	-0.22	+0.97
금	1,295.10	-1.08	+0.70	USD/JPY	111.7	+0.48	+0.11
은	15.171	-1.84	+0.87	GBP/USD	1.3228	-0.82	+1.09
알루미늄	1,903.00	-0.10	+2.09	USD/CHF	1.0039	-0.02	-0.73
전기동	6,404.00	-1.06	-0.30	AUD/USD	0.7066	-0.39	+0.71
아연	2,825.00	-0.77	+3.29	USD/CAD	1.3332	+0.23	-0.91
옥수수	370.25	+1.02	+1.37	USD/BRL	3.8479	+0.83	-0.74
밀	452.75	+1.23	+3.31	USD/CNH	6.7227	+0.32	-0.17
대두	898.50	-0.28	-0.44	USD/KRW	1134.80	+0.19	+0.51
커피	97.15	-0.51	+0.31	USD/KRW NDF1M	1135.40	+0.55	+0.15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627	+0.54	-1.26	스페인	1.188	+0.30	+14.80
한국	1.980	+1.00	-3.00	포르투갈	1.328	-1.20	-0.90
일본	-0.041	+0.10	-3.40	그리스	3.807	-1.10	+0.50
독일	0.086	+2.10	+1.90	이탈리아	2.498	-5.10	+3.10